

제목: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보이신 기적"

말씀: 사도행전 4장 23-37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는 그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도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어떠한 기적이 있었습니까?

1. _____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2. 성도들 간의 모든 _____의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
3.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_____의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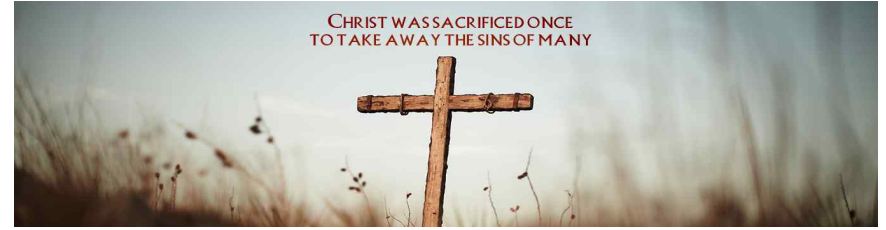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운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성령강림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도행전 4장 23-37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Acts 4:23-37 신약 1936 페이지 Presider
- 말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보이신 기적"...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긴 휴일 Long Weekend)

모처럼의 긴 휴일이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생각난다. 하지만 휴일은 오직 하루뿐이다.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리 많은 시간도 아니다. 하루 더 쉬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루가 늘 빠르게 지나가고 만다. 아쉽다. 사람들에게 긴 휴일이 어떠했느냐고 물어보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더 많다. 이번 휴일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모처럼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났지만 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제 모처럼 낮잠을 잤다. 그리고 나니 몸이 많이 좋아졌고 가장 좋은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피곤하지 않고 건강해야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활발하고 방황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쉽 일 것이다. 신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나태해 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피곤에 지친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쳐버린 듯 한 상태에서의 쉽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믿음생활을 중단하고 잠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일에 휴식이 될 것이고 건강을 되찾는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피곤하고 바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쉬고 예배를 쉰다. 그것이 힘을 얻는 길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길이 세상에서 행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에 열광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생활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실리 없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지 믿음의 선배들의 체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얻으라고 하신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그 길밖에 지금의 역경을 이길 길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더 강한 마약이 나와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통되며 영향을 받아 건강과 생명을 잃고 있다. 그렇게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몸부림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라고 하신다. 우리에게는 긴 휴식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늘 성령님과 긴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 그 길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운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키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5월 행사

목자 훈련	6월 18일(주)	친교 후
목장 모임	5월 25일 주 중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